

‘희망 100년’ 해남 신청사 시대 개막

1만8,601㎡ 면적...군 7층, 군의회 5층 규모

12월 구청사 철거 완료 예정...군민광장 조성

해남군 신청사 이전이 완료됐다.

해남군은 지난 8월 신청사 준공 후 1개월여의 시험 가동과 부서 이전 절차를 마치고, 지난 13일부터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자랑스런 군민과 함께할 희망 100년의 시작!’을 목표로 지난 2019년 착공한 신청사는 연면적 1만 8,601㎡, 군청사 7층, 군의회 청사 5층 규모로 완공됐다.

군청사는 1층 모자휴게실과 주민소통공간, 2층은 역사관 및 북카페, 대회의실 등

주민친화공간이 들어서며, 3층은 직원쉼터와 육외휴게공간, 4~6층은 직원 업무공간, 7층은 CCTV관제센터와 재난상황실, 구내식당이 들어선다. 지상 및 지하에 130여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도 조성돼 있다.

군 의회청사는 1층 주민소통실과 의회로비, 2층은 재무과 사무실, 3~5층은 해남군의회 본회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실, 개인의원실 등이 들어선다.

해남군은 최근 코로나 확산 예방 및 공

사기간 군민불편사항을 감안해 하루라도 빨리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청식을 잠정 연기하고 지난 13일 소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1층 복층 현관에서 간단한 현판제막식 후 신청사 업무를 시작했다.

한편 1968년부터 50여년을 해남군민과 동거동락했던 구청사는 신청사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추석 이후 철거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역사속에 묻히게 된다.

2개동으로 구성된 구청사는 연면적 6,478.45㎡,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공간을 압쇄기를 장착한 장비로 상층에서 하층으로 파쇄하면서 해체하는 공법을, 철골조 구간은 절단 공법으로 철거를 진행한다.

철거 설계 과정에서 수성송 생육환경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문화재청 자문위원 등 자문을 거쳐 지하층은 지하 1층 벽체 중간까지만 철거하고 지하 2층은 지하수 유통구 확보 후 되메우기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안전 확보 강화를 위해 도로변 및 문화예술회관 구간은 낙석방지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대거 반영했다.

구청사 철거는 올 12월 중 완료 예정이다. 구청사 철거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중 신청사와 군민광장을 연결하는 해남루 계단 및 내측 읍성정비가 추진되며 동시에 군민광장 조성이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명현관 군수는 “민선7기 들어 군민과 함께할 희망 100년이 시작된 만큼 그동안



해남군 신청사 이전이 완료돼 지난 13일부터 업무를 시작한 가운데 명현관 군수가 민원실을 점검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불편함을 감내해 주신 군민들께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걸음을 멈

추지 않을 것이며 군민광장 조성 등 앞으로 군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신안군은 최근 병풍도에서 불거리 가득한 문화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맨드라미 센터와 병풍도 관리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신안군 제공

신안 병풍도 맨드라미센터 개소

문화 전시공간·복지서비스 제공 기대

신안군 증도면에 딸린 작은 섬 ‘병풍도’에 맨드라미 센터와 병풍도 관리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14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병풍도에서 불거리 가득한 문화 전시공간을 마련하고 편리한 행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맨드라미 센터와 병풍도 관리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맨드라미 센터는 지난해 농림부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 20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마을의 커뮤니티 증진과 외부 방문객을 위한 휴게 장소로 조성했다.

마을 안길 포장과 배수로 정비, 주차장 및 소공원, 가로등 정비, 무선방송시스템 도입 등 마을 기반시설도 확충했다.

폐교된 증도초 분교를 리모델링해 다목적 회의실, 전시공간 4실, 화장실 등을 갖췄다. 특히 병풍도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나서 황무지를 일군 맨드라미꽃동산과 ‘한국의 섬티아고’라 불리는 12사도 예

배당, 기적의 순례길 등으로 언택트 시대 최적의 힐링 장소로 손꼽힌다.

신안군은 방문객들의 편의와 친절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체감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병풍도 관리사무소도 새롭게 단장했다.

지난 1988년 3월 5일 설치됐던 병풍도 출장소는 올해 3월 신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병풍도 관리 사무소로 거듭났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 지역민들의 불편 해소와 생활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목포,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공모 선정

72억 투입...2024년 개원 목표

목포시에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가 건립된다.

14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2021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건립 사업’에 목포중앙병원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 재활치료를 제공한다.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는 오는 2024년초 개원을 목표로 총 72억원을

투입해 재활의학과 등 진료과목을 개설하고 1일 소아입원 병상 20개, 외래 환자 30명 이상 기준으로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재활치료, 의료서비스 제공은 물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 가족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 재활의료기관 설립에 따라 집중재활치료 등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기 및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지역 내 치료와 퇴원 이후 재활서비스 연계가 가능하게 됐다.

또 생애주기별 정기 평가를 통해 성장에 따른 기능 저하 예방, 조기진단 및 치료로 2차적 기능손실 및 합병증을 예방하는 등 전남 서남권 장애아동은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중증 장애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목포=박승경 기자

무안, 강소농 집중 육성한다

5,800만원 투입...교육·컨설팅 등 진행

무안군은 강소농에 대한 단계별 교육과 정과 자율소모임체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경영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강소농 육성 정책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강소농이란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로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추고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비용 절감, 품질 향상, 고객 확대 등 경쟁력을 키워가는 중소 규모 가족농을 말한다.

군은 강소농 자율소모임체를 적극 발굴하고 이들이 지역 선도 농업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군비 5,800만원을 투입해 교육·컨설팅 등 역량을 강화하는 한

편 경영개선과 창업활동 기반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강소농 20여명을 대상으로 한 경영개선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완료했으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육성된 강소농 소모임체 3곳을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창업기반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강소농 경영개선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온라인 홍보·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선진 농가와 기관 현장학습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무안=박주현 기자

영암, 무상 우유급식 확대

영암군은 240명 이상 재학중인 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영암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36개교 전체 학생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당초 무상우유급식 사업은 국비, 도비 및 군비 예산을 지원해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중 기본 지원 대상자와 더불어 올해부터는 전체 초등학교, 학생 수 240인 이하 중·고등학교 학생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학생수가 많은 삼호지역 중·고등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이 무상우유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일부 학생만이 지원받았다.

이에 군은 추가로 2,000만원의 군 예산을 확보해 영암 전체 학교 학생들에게 무상우유급식을 지원하기로 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신안, 비대면 화상 면회시스템 지원

신안군이 11개의 노인요양시설 입소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 지원과 가족 간 소통 공간 마련을 위해 비대면 화상 면회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14일 신안군에 따르면 KT에서 지원하는 그룹 영상통화 지원 앱(‘나를’에 플리케이선)을 활용해 스마트폰과 이동 가능한 43인치 대형 TV를 제공, 최대 8명까지 동시에 화상면회를 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별도의 면회 공간 없이 영상화면의 이동이 자유롭고 수시 면회가 가능해 입소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만족도도 높다.

박우량 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과 가족들을 위해 비대면 화상면회로 소통과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무안 몽탄면 지사협, 사랑의 후원품 전달

무안군 몽탄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사랑의 후원품(쌀 10kg 100포, 김 17박스)을 전달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사협 위원들과 각 마을이 장들로부터 대상자 추천을 받아 복지사 각지대 저소득 소외계층 117가구를 선정하고 후원품을 보냈다.

장우유 지사협 민간위원장은 “작은 후원물품이지만 명절을 맞아 이웃들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욱 몽탄면장은 “어려운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안=박주현 기자



강진경찰, 학교폭력 예방 업무협약

강진경찰서는 최근강진고등학교, 전남생명과학교고등학교와 최근 강진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지역 내 학교폭력 및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식에서 강진 관내 학교현황 및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 등 지표를 파악하고 각 기관별 추진 현황에 대해 공유했다. 청소년들이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승기 서장은 “요즘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나고 있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교육청 및 학교, 경찰서 등 유관기관 모두가 함께 작은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강진=한태선 기자